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3기 여덟번째 강사 사진작가 배병우

# “미술관 건립보다 예술가 육성이 중요”

‘배병우 미술관’ 제안 사양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프랑스 숲·나무 촬영 한창  
오바마 대통령에 사진집 선물

독서·여행 많이 하면  
어느 경지든 다다를 것

“오스트리아 빈 잘츠부르크는 모차르트 한 명 때문에 세계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잘츠부르크 음악축제도 모차르트 때문에 세계적인 음악축제가 됐죠. 지역에 누군가의 미술관을 만드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위대한 예술가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수 출신의 세계적인 사진작가 배병우(65)는 “미술관을 지어주겠다는 제안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제안은 있었지만 사양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일 오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3기 여덟 번째 강사로 나서 ‘배병우의 사진 이야기’를 주제로 회원들을 만났다. 이날 그는 회원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했고, 이후 지난 3월부터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자신의 개인전을 회원들과 함께 둘러보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배병우는 “사진을 25살에 시작해서 올해 꼬박 40년이 됐다”며 자신을 ‘나무’를 한그루도 베지 않고 나무를 팔아먹고 사는 ‘나무꾼’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2016년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일환으로 수 년째 프랑스 상브르 성 주변의 숲과 나무를 찍는 작업을 하는 등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한 그는 자신의 사진 작업의 뿌리를 그림이라고 표현했다.

“어린 시절 그림을 그렸습니다. 광주일보가 주최한 호남예술제에서 당시 최우수상 없는 우수상을 수상했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 오지호 선생님이 잘 그린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모든 학문이나 예술은 어렸을 때 즐기면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여수 앞바다와 마을 뒤편 소나무 등을 그렸습니다. 제미의 원형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지인의 권유로 사진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바다와 나무를 찍었죠.”  
서른셋부터 찍기 시작한 ‘소나무’ 사진은 우리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



지난 2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에서 사진작가 배병우가 ‘배병우의 사진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서 탄생했다. 그는 흑과 백이 만들어 내는 한국 수묵화와 같은 느낌과 맥락을 소나무 사진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수묵화에서 화선지의 여백이 하얀색을 표현한다면 자신은 빛으로 하얀색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부처나 예수의 후광처럼 배경 뒤편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소나무를 하나의 아이콘처럼 표현했다. 그에게 광선은 하나의 언어나 다름없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진을 선물한 것으로 안다”라는 질문에 그는 “사진이 아니라 사진집인데 잘못 알려졌나”라며 2009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선물한 사진집 ‘정산에 살어리랏다-배병우의 아름다운 한국’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처음에는 사진을 선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물어봤더니 50만~100

만 원이라고 하기에 싫다고 했어요.(웃음) ‘정산에 살어리랏다’는 ‘우리의 아름다움이 뭘까’라는 고민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모여 토론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죠. 저는 그때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풍경(風景)을 영어로 ‘landscape’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것을 직역하면 육경입니다. 저는 그래서 풍경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windscape’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서양과 동양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었죠. 서양에는 황금분할이 있지만 동양에는 그것보다 완벽한 정선적인 미가 있습니다. 석굴암이 최고의 조각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그는 여전히 소나무 사진을 찍고 있다. 동양의 정신을 더 완벽하게 담아낸

사진을 찍기 위해서다.

배병우는 중국 명말 최고의 서화이론가이자 화가, 서예가인 동자창의 말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동자창은 화가의 운필 가운데 첫 번째가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늘이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배워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만권서 행만리로(讀萬卷書 行萬里路).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의 길을 걸으면 저절로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책을 많이 읽지만 아직 만권은 읽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리의 길은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만리를 걸으며 느낀 것이 ‘어려 인격과 세상이 만나 결국은 하나의 인격과 세상이 되는 것’같다는 생각입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강의가 끝난 후 리더스아카데미 회원들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배병우 사진전을 둘러봤다.

## 예술고 학생들 끼 발산

광주예고 ‘예향제’ 5~10일 광주문예회관·금호갤러리



광주예술고등학교(교장 기사) 학생들의 끼를 만날 수 있는 32회 예향제가 5~10일까지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등에서 열린다.

‘예술가를 꿈꾸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음악, 국악, 무용, 미술로 나뉘어 진행된다.

9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음악과 공연에서는 관현악합주로 하차투리안의 ‘가면 무도회 중 왈츠’와 베토벤의 ‘교향곡 5번 1·2악장’을 들려주며, 합창, 피아노 트리오, 바이올린협연 등의 무대가 펼쳐진다.

10일은 무용과 학생들이 실력을 뽐낸다. 한국무용 ‘낙풀이’, 현대무용 ‘알 수 없는 길’, 모던발레 ‘웨스턴 심포니’, 클래식 발레 ‘코렐리아’ 하이라이트, 한국 창작 무용 ‘달빛 그곳에 머물다’ 등이 공연된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국악과 학생들이 정악 ‘경풍년’, 가요금 병창 ‘춘하추동’, 관현악 ‘타지부’, ‘비류’, 풍물 판곡, 창극 ‘춘향전’ 중 ‘만남과 사랑’ 등을 선사한다.

한국화회와 미술과 전시는 5일부터 10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린다. 문의 062-520-884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표문화전당, 공연예술축제 D-100 기념

### ‘즐거운 우리 가족’ 어린이 그림 공모

오는 9월 문을 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대규모 어린이 공연예술축제(9월 4일~14일)가 열린다.

전당 어린이문화원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일본,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0개국 어린이 전문 공연단들이 참여하며 개관 퍼레이드, 어린이 공연, 체험놀이 워크숍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행사를 준비하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은 공연 예술축제 D-100일을 기념, 어린이 그림 공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즐거운 우리 가족’을 주제로 부모와 함께 어린이가 그림을 그리는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 어린이문화원 SNS에 게시하고 그림을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100개의 그림은 예코백(사진)



으로 제작되며 예코백을 받은 인증사진을 SNS에 올리면 공연예술축제 예매권도 증정한다. 또 행사 기간에 맞춰 어린이문화원에서 전시회가 열리며 심사를 거쳐 선발된 3개의 작품은 개관 페스티벌 홍보 이미지로 활용된다. 접수 마감은 오는 11일이다. 문의 062-410-3750. 문의 062-410-3750. /김미은기자 mekim@

## ‘콘텐츠 원작소설 창작과정 운영 지원’ 작가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야기산업 진흥을 위한 ‘콘텐츠 원작소설 창작과정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창작 작가를 모집한다.

신청작가들을 대상으로 총 14명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며, 응모 기간은 오는 8~19일이다.

진흥원은 참가 신청자의 작품 시놉시스(개요)의 독창성과 구성 완성도 등 5개 항목에 대한 서면 및 면접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작가들에 대해서는 기획과 집필, 사업화 등 단계별로 약 8개월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또 창작지원금 및 경기도 일산 빛마루에 위치한 스토리창작센터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지난 2013년부터 총 34명의 신진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제3의 남자’, ‘도연’, ‘불량 영혼 구조대’ 등 작품이 출간을 앞두고거나 온라인 연재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9억(보 4.2억 월 1,34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신원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용봉동 2층 상가건물 매12억(1억1천 월580만 포함)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벽진동 마산마을부근 참고 230㎡ 임대 보3천만 /월170만(조정가)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송정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화정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945㎡ 매 27억
- 마록동 대지 701㎡ 매10억5천만
- 벽진동 대지 1,070㎡ 매 6억5천만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원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퇴직하신 하신 분과 귀존인을 위한 **전원주택**

매매 2억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공음면소재지) 대지 200평/건평 35평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NAVER **하우스토리** **고창에 집짓기** **하우스토리**

**노무현 전 대통령님 봉하마을 사저와 부엉이 바위 펜화**

원상면 그림 가로 65cm x 세로 53cm  
50만번의 펜선이 모여 완성된 펜화가 김영택의 작품. 판화로 찍은 10점(한정판) 중 남은 2점을 양도합니다. 판화 가격은 1점당 120만원이며 원화를 구매하고 싶으시면 개별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010)3722-3076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제10-1239196호), 특허(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